



2020 수향산방 특별기획전

# 김환기, 성심 聖心

*KIM Whanki, Sacré-cœur*

수향산방 특별기획전 《김환기, 성심聖心》展은 1950년대부터 1974년, 작고하기까지 김환기 작품 속에 꾸준히 등장하는 ‘하트’ 도상을 중심으로 김환기와 김향안,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 삶의 장면과 기록이 투영된 작품들을 연결해 소개하며 김환기가 펼쳐나간 예술세계를 살펴본다.

김환기의 ‘하트’ 도상은 1950년대 후반부터 부각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김환기 회화의 출발부터 변화해온 다양한 이미지 형식들 가운데서도 매우 개성적이고 독보적이다. 1957년 파리 체류 시절, 모친의 작고 소식을 머나먼 타국에서 접한 뒤 종일 흐느끼며 그린 유화 작품 ‘성심(1957)’을 비롯해 다양한 재질 위에 이어나간 연작들이 남아있는데, 여타의 구상이나 이미지들과 비교되는 형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붉은 피를 쏟는 심장과 그로부터 탄생한 별이 창공으로 솟아 날아오르는 하트를 그려 완성한 ‘성심(1957)’은 이들 연작의 중심에 있다.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진 ‘하트’는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김환기의 다양한 장르(십자구도, 사방구도, 상징도형 연작 등)의 작품에서 중요한 조형 요소로서 등장하게 된다.

《김환기, 성심聖心》展에서는 화면 가득 채워진 ‘하트’ 작품부터 점과 같이 아주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하나의 조형 요소로서의 ‘하트’뿐만 아니라 나뭇잎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의 ‘하트’나 해체와 결합의 과정을 거쳐 한층 흥미롭게 변주된 ‘하트’ 도상까지 비교해가며 살펴볼 수 있다. 본 전시는 ‘하트’ 도상과 연결한 3가지의 주제로 김환기의 사랑과 유머가 넘치는 심상心想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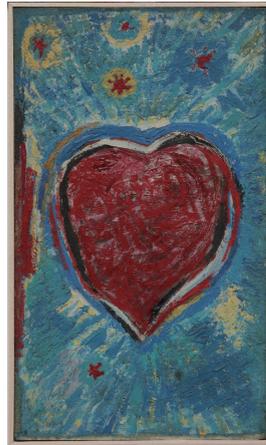
### 김환기, 김향안의 예술적 지지와 존경, '경애敬愛'

김환기에게 부인이었던 김향안은 인생의 동반자이자 예술의 후원자였다. 김환기는 자신에게 '예술적 지지와 존경'을 표하며 항상 곁에서 힘을 주던 김향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작품 속에 표현하였는데, 부부가 살던 성북동 집과 함께 자신과 김향안을 같이 그리거나, 사슴 두 마리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다감한 편지글과 함께 그려진 애정 어린 그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김환기, 집, 1956, 종이에 펜과 수채, 14 x 10 cm  
KIM Whanki, House, 1956, Pen and Watercolor on Paper, 14 x 10 cm

### 어머니를 향한 거룩한 사랑, '성심聖心'

1950년대 중반, 프랑스 파리에서 화업畫業에 매진하던 김환기는 어려운 상황을 딛고 전시를 열었다. 그때 고국에서 온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받고 괴로워하며 '성심(1957)'을 그렸다. 어머니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표현으로 시작된 '하트' 도상은 김환기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린 점화 '4-VI-74 #334(1974)'의 붉은 하트로 계속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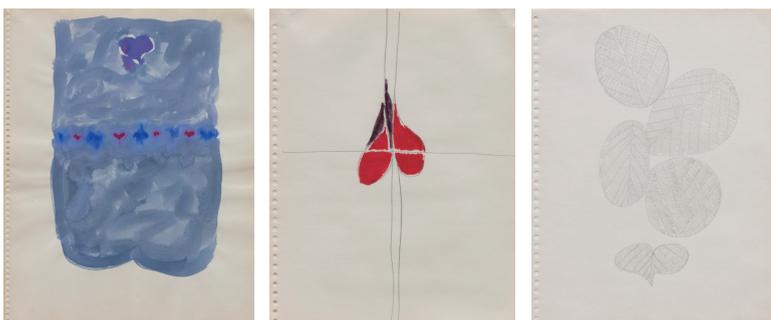
▲ 김환기, 성심, 1957  
보드에 유채, 46 x 27 cm  
KIM Whanki, Sacré-cœur, 1957  
Oil on Board, 46 x 27 cm



▲ 김환기, 4-VI-74 #334, 1974  
코튼의 유채, 122 x 86 cm  
KIM Whanki, 4-VI-74 #334, 1974  
Oil on Cotton, 122 x 86 cm  
(\*참고도판, 전시작품 아님)

### 새로운 예술을 향한 도전과 열정의 상징, '하트'

1960년대 김환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예술인들의 용광로와 같았던 뉴욕에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었다. 이 시기의 김환기는 점, 선, 면, 색을 중심으로 새로운 화면구성을 시도하며 다양한 조형 실험과 재료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갔으며, 새로운 양식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에는 '하트' 도상이 있다. 십자구도와 사방구도 그리고 상징도형 연작에서 '하트' 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질서와 균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제작한 점과 선으로 구성된 작품에서도 '하트'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김환기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표현되었던 '하트' 도상은 작품 속 중요한 조형 요소로 등장하다가, 점차 '하트' 이미지가 해체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다시 재결합되기도 하면서 정화된 미적 결정체가 되어 김환기의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갔다.



◀ 김환기, 1960년대 드로잉  
KIM Whanki, 1960s Drawing